

내달 13일 예비 후보 등록... 19대 총선 입지자 출판기념회 러시

# 속내는 勢과시·실탄 확보·공천경쟁 선점

내달까지 13건 몰려... 벌써부터 총선가도

내년 19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다음달 13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선거일 90일 전(내년 1월 11일)까지 출판기념회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11월과 12월에 출판기념회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출판 기념회를 통해 지역구 유권자에게 그동안의 의정 활약상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조직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여기에 출판기념회를 통해 느껴진 후원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책자 판매 등을 통해 내년 총선 재원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출판기념회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거나 집필 중인 의원은 1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우선, 강기정(광주 북 갑) 의원이 오는 5일 전남대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며, 조영택(광주 서 갑) 의원도 오는 1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이 담긴 출판기념회를 연다.

우윤근(광양), 김성곤(여수 갑) 의원도 18일과 2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각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며, 박상천(고흥·보성), 최인기(나주·화순) 의원도 25일과 30일 국회 의원회관과 지역구에서 각각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유선호(장흥·강진·영암), 주승용(여수 을), 김영복(해남·완도·진도) 의원 등도 정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책을 집필하며 출판기념회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광주 북 갑) 의원은 지난 5월 28일과 6월 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과 지역구에서 한 차례씩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한나라당 이정현(비례) 의원은 지난 달 26일 출판기념회를 가졌으며 이윤석(무안·신안) 의원은 지난 1일 찬양 음반 발표회를 가져 이목을 끌었다.

내년 총선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도 출판기념회를 통해 인지도 제고에 나서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에 비해

인지도와 지지세가 약한 상황에서 출판 기념회는 정치 신인들로서는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 신인들은 출판기념회에 당 내의 고위 인사와 지지자들의 참석 유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지지세과시를 통해 차기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는 점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최근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명목 퇴직한 뒤 구례·곡성·담양에 터를 잡은 이기호 전 전남부지사는 오는 12월 26일 30년 간의 공직생활과 정치 비전을 담은 책을 펴내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해남·진도·완도 지역구 도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박광운 문화방송 논설위원도 이달 하순 여의도

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남구에 도전할 예정인 김명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광주 서구 갑 송갑석 전 전대협 의장은 12월 중순경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러시를 이루면서 내년 총선 분위기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잇따른 출판기념회로 지역 유권자 동원 경쟁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출판기념회가 잇따르는 것을 보니 정치의 계절이 본격화된 것 같다"며 "하지만 지지자 동원 등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내년 19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과 정치 신인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사진은 지난 달 27일 광주 서구 염주동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의 자선적 에세이 '진심이면 통합니다' 출판기념회.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10·26 정치권 빅뱅

# 대통합이나, 민주 중심 연대나

짙흔들리는 정당정치  
통합·대선 구도 급변  
해방야권의 진로는

시민 세력 동참 이끌어야 총선·대선 승리

주도권 경쟁에 방법론 싸고 감론을박 한창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의 승리는 야권에서 계속 제기됐던 '야권 대통합'의 명분을 확고히 해줬다.

잡음이 있었지만 공동선거대책위의 활동과 운영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서울시정도 범야권이 공동으로 책임지게 됐다.

야권 내에서는 이 선거를 통해 야권이 하나로 힘을 모으면 여권에 충견이 대항할 만하지만 개별 정당으로는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야권이 단일후보를 배출한 서울시정 보궐선거에서 이겼지만 민주당이 자당 후보를 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호남 지역을 제외하면 전부 패배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선거 직후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박원순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이며, 더 큰 민주당의 승리"라며 "민주진보연정의 대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용선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공동대표도 "조정과정에 있어서 일정부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선거를 무사히 치렀다"면서 "새로운 시민정치세력이 야권통합에 동참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권 통합 추진 기구인 '혁신과 통합'의 남윤인선 공동대표는 "이번에 공동 선거운동을 하면서 야 5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했다"며 "야권 통합에 힘이 더욱 실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도 선거 다음날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방문,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른 야권이 통합하고 연대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박 시장은 지난 1일 공석인 정무부시장에 김형주 제 17대 열린우리당 전 의원을, 정무

조정실장에 기동민 전 민주당 대변인을 각각 내정하는 등 정무라인에 민주당 출신을 전면 배치하며 야권 대통합의 분위기를 더했다.

하지만, 대통합은 민주당의 기동민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민주당 내부적으로 통합의 방식과 수준에 대한 입장차가 다양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을 추진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정체성이 다른 야당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합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혁신과 통합, 그리고 다른 야당의 일부 세력이 동참하는 중통합 논의가 나오는 이유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대통합을 얘기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며 "현실적으로 중통합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어찌 됐든 야권통합은 현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다. 통합의 명분을 부정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고 방법론을 둘러싼 감론을박이 한창이다. 야권통합의 주도권을 놓고 제1야당인 민주당과 국회 밖에서 활동 중인 진보연정이 경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중통합 논의가 진척되자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민노당은 최근 조승수·노회찬·심상정 전 대표를 비롯한 진보신당 탈당파(통합파)와 국민참여당이 참여하는 '3자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어떤 상황에서든 통합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중통합이 이뤄진 뒤 진보정당 측과 또다시 통합을 논의하거나 연대를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영산강·금강 등 홍수 위험 크게 줄었다

국토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 공청회

'4대강 효과'로 2020년 물부족량 큰 폭 감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로 4대강 유역 등 상당수 지역이 가뭄시에도 물부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또 오는 2020년의 물 수요 전망치는 263억9000㎥로 5년 전의 전망치에 비해 8억1000만㎥ 감소했다.

국토해양부는 2011~2020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2일

오후 2시 과천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2차 수정계획에서 물부족 부분을 검토한 결과 4대강 살리기 및 댐 건설 등으로 4대강 유역 등 대부분 지역의 물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가뭄정도에 따라 4대강 이외의 구간인 도서·해안 및 산간 등 일부 지역에서만 5년 가뭄 빈도에서 1억 6000만㎥, 과거 최대 가뭄 대비 4억 6000만㎥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06년 1차 수정안에서 전국적으로 9억3000만㎥의 물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것과 비교해 물부족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4대강 사업 후 홍수 위험도도 급감할 전망이다. 4대강 사업 전에는 4등급 이하인 홍수 위험지역이 305개소

에 달했으나 한강, 금강, 영산강의 경우 '위험(4등급)' 및 '매우 위험(5등급)' 등에서 해소됐다. 다만 낙동강은 5등급에서는 벗어나지만 일부 지역이 4등급으로 남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과거와 달리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기후변화 예측모델(IPCC 4차 보고서)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수자원 영향을 전망한 결과 2090년까지 1일 강수량 10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횟수가 과거에 비해 2.7배 이상 증가하고, 현재 100년 빈도의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댐의 홍수방어 능력은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협뉴스

## 빛의만평

- 김중두



말이 씨되는거 모르십니까?!

# 2011 가을&겨울 제주 골프투어 사은행사

이제 제주도/해외 골프여행은 믿을수 있는 골프 전문가 스피드골프와 함께 하시면 편안합니다

광주 왕복항공 주중출발 1박2일 골프 4명이상(1조) 출발가능!

1.해비치 리조트 32평 (4인1실) 36홀  
▶해비치CC 18홀, ▶해비치CC 18홀 ₩299,000

2.부영 골프텔 30평 (4인1실) 36홀  
▶더클래식CC 18홀, ▶부영CC 18홀 ₩329,000

3.한라산 골프텔 30평 (4인1실) 36홀  
▶아네틸CC 18홀, ▶한라산CC 18홀 ₩339,000

4. 관광호텔 (2인1실) 36홀  
▶제피로스CC 18홀+▶세인트포CC 18홀 ₩349,000

5.에버리스 골프텔 54평 (4인1실) 45홀  
▶라운CC 18홀 +▶에버리스CC 27홀 ₩389,000

6.오션스위츠 호텔 (2인1실) 36홀  
▶블랙스톤CC 18홀 +▶세인트포CC 18홀 ₩419,000

♣ 기타 다른골프장 및 숙소 선택 가능합니다. 2박3일 골프투어 및 자유여행, 한라산등반 가능합니다. (요금별도 문의)  
▶ 공통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그린피, 숙소, 단독수송차량. ▶공통 불포함사항 : 캐디피, 전용카, 식사, 기사팁, 유가할증료 (11월기준 ₩24,200)

365일 좌석확보  
가족여행  
자유여행 가능!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최우수 판매대리점 예약센터 (주)투어클럽 & 스피드골프투어 ☎ 062)382-8201, 010-3613-7810